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나누는 몇 마디 (7)]

제임스 김 나눔

## 크게 들리는 소리?

충분히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크게 들리는 많은 잡다한 소리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더 크게 들길 기원합니다.

## 큰 고통을 가져다 줄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아야 하는데 ... ㅠ

##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기 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 큰 바위를 밀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바위를 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하루 종일 밀었지만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밀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밀었지만 그 큰 바위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위만 움직이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큰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 바위를 움직이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는 예화입니다.

왠지 목회는 큰 바위를 미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

큰 바위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승리!

## 큰 위기, 더 큰 믿음으로 ...

큰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 큰 축복과 큰 특권

마음의 고충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큰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 큰 축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 그룹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여  
기도로 함께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 타락하고 변질되기 보다

크고 높은 위치에서  
타락하고 변질되기 보다  
작고 낮은 위치에서  
씨름하면서 변화되는게  
훨씬 낫습니다.

## 타락한 목사?

마치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도덕적 방탕, 탐욕, 욕심과 야망, 교만과 허세로 타락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탐심과 우상숭배

탐심과 우상숭배는 연관 있다(미가 1:7, 2:2, 참고: 골 3:5).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이 탐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을 것이다.

## 통찰력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올바른 통찰력(perception)을 갖도록  
부모로서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어제 주일 가족 모임 대화 및 예배 후 아내하고 한 자녀의 발언에 대해서 대화한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 특권을 잃어서라도

특권을 잃어서라도  
겸손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

(ANTHONY T. SELVAGGIO, "FROM BONDAGE TO LIBERTY -  
THE GOSPEL ACCORDING TO MOSES"을 읽으면서)

## 특권의식 특별대우 경계

우리는 특권의식 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특별히 아니라 마땅히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특별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 틀안에 갇힌 사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비본질적인 틀속에 박혀  
그 틀속안에서만 일이 진행되는 것에 안심을 하고  
그 틀밖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매우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한다면  
안그래도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그리도 염려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 ...

## 판단 Yes, 비판 No

(지혜롭게) 판단은 하되  
(분노하면서) 비판은 하지 말아야 ....

## 판단력과 결단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시어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 편리한 신앙생활 보다 ...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 편안이 아닌 불안일 수도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에게 '편안'을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그 길에 끝에는 '불안'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



## 편안함의 결과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  
점점 더 편안해지는 우리의 삶,  
그 결과  
우리는 고난(고통)을 회피하는 사람이,  
우리는 희생할 줄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듯 ...

## 편안함의 불편함?

편안한게  
불편할 때도 있어야 하는데 ...ㅠ

## 평범하게 살기

설 수가 없이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혹은 대단한 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강박개념에 사로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루 하루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즐거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평범한 동역자의 축복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체휼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범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생활에 감사하자.

## 평범한 우정

주님 안에서의 우정은 평범한 우정입니다.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이뤄진 친구 관계에는  
가식적인 것이 없고 서로의 진실된 모습 속에서  
평범한 사랑과 신실한 충성과 희생적인 헌신 및 순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평생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평생 배워야 합니다.

## 평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을 정도로  
평생 주님에게만 의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평적인 관계이전에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사귀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수직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귀어 있길 갈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일대일로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연결되고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중심된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 평화롭게 잠드신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을 생각할 때 ...

고 오 덕경 장로님,

나의 장인 어르신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일"을 좋아하셨다.

그런데 나는 지난 주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에서야 처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병으로 그리도(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는데 그 찬송가 1 절 가사처럼 "내 평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갈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한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그 고통의 길이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통 중에 "늘 잔잔한 강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우셨는데 어떻게 "나의 영혼을 늘 편한다"라고 찬양을 즐겨하실 수 있으셨을까??

나는 평화롭게 잠드신 장인 어르신을 생각할 때

"평강"이란 단어와 함께 빌립보서 4 장 6-7 절 말씀이 생각났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하고 절망할 때에라도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있을 경우

많은 상처와 아픔 등으로 인하여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말도 그대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하며 또한 부풀려서 상상하여  
부정적으로 듣고 분노하며 상처까지도 입는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을 갖지 않는 피해자가 되는게 낫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보다 피해자가 되는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의식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 할 필요 없습니다.  
부럽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필요합니다 ...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

## 하나님 보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보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생활 하기에 분주히 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 보다 안전과 보장을?

우리가 안전과 보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입니다.

[Iain M. Duguid, "Living 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을 읽으면서]

##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기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의 품안에 고히 잠들고 싶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우고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 하나님,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감시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칭찬 받은 그 일을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는 서서히 내가 잘한 줄 착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내가 좀 잘난 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은근히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돌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내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시편 115:1).

##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자라나고(growing)  
서로 사랑함이 증가(increasing)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살후 1:3).



## 하나님께 감사 ...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창세기 32:10).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많은 축복을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립니다.

## 하나님께 감사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한 것 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 라는 고백을 들으니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마음에 내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과 같다.

#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겉모습보다 내 마음을 보고 계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의 겉모습보다 내 자녀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알고 계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의 행동보다 그/녀의 의도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의도를 아시고 격려하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가면서 격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힘주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듯이  
나 또한 내 자녀를 그/녀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젯 밤 사랑하는 자녀와 주님 안에서 귀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4 개의 말씀들

나의 인생의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4 개의 말씀들:

1. 나를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 장 1-15 절 (1987 년 대학부 수련회 때)
2. 나의 결혼 예배 때 주신 말씀: 시편 34 편 8 절 (1997 년)
3. 나의 첫째 아기를 이 세상에서 떠나 보낼 때 주신 말씀: 시편 63 편 3 절 (1998 년)
4. 나를 다시금 승리장로교회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 장 18 절 (2003 년 한국 교강협 수련회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28 장 15 절)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시는(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창 43:23).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시는 것을 ...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시는 것을 목사인 내가 중요시해야 하고,  
내가 중요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중요시하길 바라지만  
각 형제, 자매님들 한분 한분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이 중요시해야 함을 깨닫는 때가 다 다를 것이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 하나님께 하고 계심을 엿봅니다.  
그저 저는 미국에서 새벽기도회 후 목양실에서 말씀 묵상을 하다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한 지체가 어떻게 지내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인데  
조금 전 당사자를 만나 들어보니 자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제가 말을 걸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채팅을 대화 기록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지체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것이 거의 2년만에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체에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를 더 아끼시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무엇인관대  
하나님께서서는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서는 아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더 아끼시기 때문이 아닌가요.

##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어제 YMCA 에서 운동하면서 MP3 로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Charlotte 총장님의 강의를 듣던 중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의 120 년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눠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준비시키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1) 모세가 애굽에 40 년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뭔가가 된 줄 생각했습니다(He thought he was SOMETHING),

(2) 모세가 미디안에 40 년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He began to understand that he was NOTHING) 그리고

(3)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 년간 인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자를 쓰시는 줄 깨달았습니다(Now he knows that God uses NOTHING).

(4)

이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1) 과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이 SOMETHING 인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사 제가 아무 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SOMETHING 이란 것은 웬지 저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만들고

또한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홀로 그 분 앞에 잠잠이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 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죄를 들춰내시고 또한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호 2:14).

##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힘든 현실이 지속되므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므로  
내 인내심이 다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어,  
다시금 일어나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심과 불신앙을 통해서도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 하나님을 내 상상력에 가두어 놓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력에 가두어 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조급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자녀를 양육해야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trust)하므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않)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자녀를 컨트롤(control)하거나  
조종(manipulation)을 해서라도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는 그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컨디션(condition)이 되어서  
어머니의 속박(bondage)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freedom)를 누리지 못합니다.

## 하나님을 자기 삶에 맞추는 데 익숙한 사람들 ...

하나님을 자기 삶에 맞추는 데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여 그 말씀을 잘 무시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하나님을 주목하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주목하기 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훨씬 위대하신지와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인지 믿게 하실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하나님의 계획

'I am sure God has plan ...' (Jane)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꺼예요 ...'

(아내가 이 아침에 한 말)



##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행동

교회의 하나됨 지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파를 형성하여  
상대방 파와 나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를  
충분히 받지 않는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 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현실을 더 가까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을  
연관시키지 못하고  
별개인 듯이 살고 있었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내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데 ...

## 하나님의 무관심?

죄를 짓는 의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해가 안되고 괴로운 것은  
악인들은 형통한데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는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다.

(W. Robert Godfrey, "LEARNING TO LOVE THE PSALMS"을 읽으면서)

## 하나님의 빠름과 더딤

하나님의 용서는 선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에 우리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 참고 계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벧후 3:9).  
이 하나님의 빠름과 더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하나님의 사람들은 ...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 하나님의 위로가 ...

May God comfort

those who are broken-hearted.

##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면 갈 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해 지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수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

목회 사역을  
겸손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은퇴를 잘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주님께서 하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주님 안에서 마음 문을 열고  
진실되게 나눔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요?

10,000 가지 받은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  
감사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1 가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면서  
그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시 그 한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요?

(김병삼 목사님의 "살아내는 약속"을 읽으면서)

##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 6:29).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보입니다(빌 1:25).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하하

약 5년 전 2010년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이 정결한 자"란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5년 후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책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현교회 김영철 장로님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내게 해주셨는데

그런 후 저는 두 번째 책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전도서 묵상집)을

내고 싶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를 통하여

서현교회 옆에 생긴 카페 포도씨의 모신희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신희 자매가 제가 보내 준 10권의 책 원고들 중

원래는 '느헤미야' 책을 묵상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희 자매로 하여금

'전도서' 책인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묵상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desire)도 다 아시고

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네요. 하하.

하나님께 감사!

##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책임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Mark D. Futato 교수님의 "The Book of Psalms" 주석을 읽으면서)

## 하나님의 충분한 진노

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fully) 진노를 쏟아내시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크게 범죄할 때에도 "막대기"를 들고 징계하시다가도 긍휼이 여시시가 멈추시는 것 같다.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남겨두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충분히 내리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 상에서  
모든 진노를 충분히 쏟아내셨기 때문이 아닐까?

## 하나님의 침묵, 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기 보다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함은 참으로 위험하다.

##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because God loves you.'



##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 하루 일과를 뒤돌아 볼 때

하루 일과를 뒤돌아 볼 때  
이런 저런 일들로 좀 분부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분의  
밝고 환한 웃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힘이나고 기쁘고 감사하네요.

## 학력과 실력보다 능력이

학력을 통하여 스펙을 쌓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고자 신학 공부를 세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통한 실력보다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 한 마음, 한 뜻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버렸다.  
왜 진리와 바른 교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

##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선 ...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인내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함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히, 희생적으로 그 한 사람을 섬겨야 함을 배웁니다.

## 한 순간입니까?

소중한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들도  
한 순간에 안 좋은 추억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가 ...?

## 한 어머니의 눈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 부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서운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자식 부부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어머니이신데 ...

## 한 영혼을 사랑케 하시는 주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사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시키시는 모습을 엿 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형제 곁에 있으며, 함께 울며,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 한번도 안싸웠다는 부부?

부부 싸움, 한번도 안했다고 말하는 부부,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두 부부가 서로 참고 산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많이 쌓인 것들이 언젠가는 그 부부 관계에 충분히 위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도 안싸웠다고 말하는 부부보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부부 관계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 부부보다  
부부 싸움을 하되 그 싸움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고 인정하며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부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함께 눈물

목회자의 눈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

## 함께 슬퍼하는게 더 나을 수도?

아무리 내 마음의 의도가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슬픔을 가볍게 생각하는 발언은 삼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세마디의 쉽게 던지는 가벼운 말보다  
침묵 속에서 옆에 서서 함께 슬퍼하는게 더 나을 수도 ...

## 함께 울수 있는 친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간구도 해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울 수 있는  
신앙의 친구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 함부러 속단해서는 아닐텐데 ...

상대방의 행동을 마음 속으로 선불리 판단하고 비판하기 보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럴꺼야 라는 마음 자세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 항상 그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때와 용서받을 때,  
화목할 때과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사랑을 표현할 때가 항상 잊지 않다는 사실을 ...)

## 해로운 자책감

빼돌어진 지아관은  
해로운 자책감 속에서  
낙심과 우울감의 늪에 빠지게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 행동을 뒤돌아 보면 ...

우리의 행동을 뒤돌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좀 알 수가 있는 듯 ...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1)

## 행함보다 존재에!

행함보다 존재에 초점을 맞춘 신앙 생활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허물 찾기보다 덮어주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을 즐기기보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하기를 즐겨워하자.

## 허전하지요.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

항상 그 곳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안보이면 허전하지요.

## 허풍, 허세

허풍 떨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자.

## 헌신된 교제의 필요성?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선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헌신된 교제가 있어야 ...

## 헤롯

사랑을 받는다는 것,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 마음에 힘이 납니다.

## 헤어질 필요도

서로가 맞지 않을 때에는 헤어질 필요도 있는 듯,

그러나 바람은 헤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헤어졌으면 합니다.

## 헤어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떠나는 자로서의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자들의 마음이

다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을 많이 담고

헤어지는 것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서로를 말기고

축복하면서 떠나며 또한 떠나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헤어짐

이젠 익숙할 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  
마지막 떠나는 순간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분명하게 남아있기에,  
그보다 사랑의 추억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적혀있기에 ...  
그리움.

## 현재의 난관은 ...

현재의 난관은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함과 분명함을 믿음으로 보게하는 기회이다.

## 형제/자매의 관계가 ...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꾸준하고  
신실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는데 ...

## 형통의 지름길?

고통은 형통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 혼동의 시대

우리는 혼동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 혼자서 보다 둘이서

혼자서 일을 하면

일을 잘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같이 일을 하면

일은 잘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 혼탁과 혼동의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동해서는 아니됩니다.

###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도마 복음"(Gospel of Thomas)에 대한 질문을

교회 어른신에게 받고 흥미로운 articles 를 찾아 읽었습니다.

이단으로 배척된 영지주의 문서로 알려진 도마 복음에 대해서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까지 어떻게 도마 복음과 같은 문서가 생겨났고

그 문서에 영지주의와 인도 종교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를

좀 엿보게 될 때

참으로 "혼합주의"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섞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섞습니다.

진리에 거짓을 더하고 그 섞인 진리에 섞인 믿음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사랑으로 이해하기!

## 화평케 하는자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데 우리는 화평을 깨고 있다면 ...?

## 확고하고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고 성숙하게 믿고  
주변 사람들도 확고하고 성숙하게 사랑하라!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확신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과 여유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회개”가 없는 “개혁”은 무의미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상에서는 할로윈(Halloween)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혁의 날(Reformation day)로 알고 있다.

특히 금년은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어제 주일 교회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개혁 500주년 주일이라는 사실을 광고 시간에 알려드렸다.

내가 그리한 이유는 아마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나부터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Always reforming)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개혁"(Reform)에는 항상(Always) "회개"(Repentance)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회개"가 없이는 "개혁"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나부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의 눈물"이 없는 "개혁의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기에 나는 "개혁"에 대한 소리를 잘 내지 않았다.

다만 내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나는 5가지 "R's"을 설교한 적이 몇번이고 있었다:

Repentance(회개)

Reconciliation(화목)

Restoration(회복)

Reformation(개혁)

Revival(부흥)

많은 교회(혹은 대부분 교회)가 부흥이나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회개를 통한 신랑되신 주님과의 관계의 화목과 회복은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부터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기원한다.

그러므로 약 500년 전에 개혁주의 자들이 외치고 실제로 그리 살았던 것처럼 ...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 우리 모두가 그리 살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회개가 없는 화목, 회복, 개혁, 부흥은 무의미합니다.

Repentance (회개)

Reconciliation (화목)

Restoration (회복)

Reformation (개혁)

Revival (부흥)

회개가 없는 화목과 회복과 개혁과 부흥은 무의미하다!

## 회개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감정의 변화나

자세 또는 마음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 ㅠ

(David R. Jackson, "CRYING OUT FOR VINDICATION:  
THE GOSPEL ACCORDING TO JOB"을 읽으면서)

## 후회

좀 더 들을 걸 ...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걸 ...

좀 더 위로할 걸 ...

## “흉악한 이리”

표면적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단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면서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심각한 도전은 바로 "흉악한 이리"들이다(행 20:29).  
그들은 우리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로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다(30 절).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성경을 비틀어서(twist) 너무나 그럴싸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성경 해석의 핵심은 바로 '사람은 신이다'(A man is a god)라는 것이다.  
지금 그들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말이다.  
이러한 New Age 적인 가르침을 지금 유명한(?) 미국 TV evangelists 이 전파하고 있다.

자칭 복음주의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31-32 절).

## 희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큰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고민과 씨름 속에서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로 남아있고자  
몸부림을 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Iain M. Duguid의 "Zephaniah, Haggai, Malachi"을 읽으면서)



##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상황)을 접했을 때 ...

1.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2. 하나님께서 내가 접한 힘들고 어려운 일(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뤄질 줄 믿고 인내합니다.
3.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펼쳐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많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단련된 찬양,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선행이 내 마음에 큰 사랑으로 다가와 심비에 깊이 새겨집니다.

##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가까운 가족 식구나 친구들을 의지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며 쏟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싶지만 오히려 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시편 69:8).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13 절).

## 힘을 얻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대접을 받으니  
그 과분한 사랑에 그저 감사와 더불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권면으로 받습니다.

## 힘이 납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젊은 이를 보면 힘이 납니다.  
주님을 묵묵히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 힘이 되는 교회 혹은 힘들게 하는 교회?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힘이 돼야하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으니 ...

## 힘이 많이 있는 것보다 ...

힘이 많이 있는 것보다  
절제된 힘이 있는게 더 중요합니다.